

[반도체]

삼성전자 3Q25 잠정실적 Comment

이수림 반도체 02-709-2661 surim.lee@ds-sec.co.kr

2025.10.14

김진형 연구원 02-709-2886 jh.kim@ds-sec.co.kr

3Q25 영업이익 12.1조원으로 예상치 크게 상회

삼성전자 3Q25 실적은 매출액 86조원(+9% YoY, +15% QoQ), 영업이익 12.1조원(+32% YoY, +159% QoQ, OPM 14%)으로 당사 추정치 10.3조원과 시장 컨센서스 10.1조원을 크게 상회하였다. 사업부별 영업이익은 DS 6.7조원, DX 3.6조원, SDC 1.2조원, Harman 0.6조원으로 추정한다. 금번 실적 상회의 주요 원인은 역시 DS 부문이다. 메모리 출하량과 판가 모두 2분기 실적발표 당시 예상 대비 높았고 최근 시장 추정치 역시 상회한 것으로 파악한다. HBM3e 역시 2분기보다 출하량이 증가하였다. 비메모리 적자 축소가 호실적에는 가장 크게 기여했을 것으로 보인다. 2분기 -2.4조원 적자에서 3분기 -0.5조원까지 적자 폭을 축소한 것으로 추정한다. 가동률 상승으로 인한 고정비 감소 영향이다. 2분기 발생했던 일회성 비용의 소멸과 전사적으로는 우호적인 환율 역시 기여했다.

[사업부별 실적 추정]

3분기 DS 부문 영업이익은 6.7조원은 세부적으로 다음과 같이 추정한다. DRAM 6.8조원, NAND 0.5조원, LSI/파운드리 -0.5조원으로 세부 추정한다. 3Q25 DRAM B/G는 12%, ASP는 14% 상승했을 것으로 추정하며 NAND B/G는 7% 상승하고 ASP는 5% 상승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NAND는 상반기 적자를 딛고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DX 부문 영업이익은 3.6조원으로 MX/네트워크 3.3조원, VD/CE 0.3조원으로 세부 추정한다. 스마트폰 출하량은 전분기와 전년 동기 대비 모두 증가한 6,300만대 수준으로 추정한다.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106,000원 유지

4분기 영업이익은 12.7조원(+95% YoY, +4% QoQ, OPM 15%)으로 추정한다. 4분기 증익 폭의 관건은 MX의 시즈널리티로 인한 판매량 부진과 원가 상승 영향을 DS 호조가 얼마나 상쇄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내년 상반기까지 메모리 가격 상승 모멘텀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다만 현재 공급이 타이트한 상황이기 때문에 B/G를 얼마나 늘릴 수 있느냐가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DRAM ASP가 7% 상승을 이어갈 것으로 추정하며 파운드리 부문이 4분기에도 3분기와 비슷한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 3분기 높은 기저에도 4분기 증익을 전망한다.

표1 삼성전자 3Q25 잠정 실적 요약

	3Q25P (추정)	당사 추정치	차이	컨센서스	차이	2Q25	%QoQ	3Q24	%YoY
매출액 (십억원)	85,935	84,130	2	83,963	2	74,566	15	79,099	9
영업이익 (십억원)	12,124	10,318	18	10,122	20	4,676	159	9,183	32
DRAM	6,801	5,691	20			3,189	113	4,076	67
NAND	485	189	157			-355	흑전	1,303	-63
LSI/Foundry	-542	-742	적지			-2,484	적지	-1,515	적지
VD/CE	275	445	-38			239	15	540	-49
MX/네트워크	3,318	3,069	8			3,087	7	2,833	17
SDC	1,207	1,229	-2			473	155	1,514	-20
Harman	579	438	32			484	20	355	63

자료: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추정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